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 갑 보
 편집인 : 문화이사대행 심 갑 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길 47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동아문화사
 (02)2267-7718

2015년 제3차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開催日時 : 2015년 9월 9일(水曜日) 11:00

開催場所 : 동보성 중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參席人員 : 總 15名 중 10名 參席

參 席 者 : 회장-갑보

부회장-상화, 상록, 상식, 찬구, 일용, 민섭, 재면, 감사-상렬, 주섭

陪 席 者 :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갑택 문화이사 대행, 관리부장

대중회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소송업무와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등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부의안건	의 결 내 용
부회장 선임의 건	2015년도 제45회 정기총회에서 결원중인 안효공파 부회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장단 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5. 8. 13 안효공파총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명옥 회장을 대중회 부회장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
소송업무 추진 및 위임에 관한 건	2013. 6. 2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중회 명의인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변경 등과, 5처묘소 위토목록에 등재된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존 등을 위한 제반 법적조치(민,형사)를 회장단에 위임한 바, 집행부는 그동안 소송을 위한 신속한 증빙자료 조사 확보 및 변호사 선임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과 소송비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회장단에서 추인하고, 아울러 소송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향후 소송에 관한 일체를 회장단에서 집행부에 위임하여 수행하기로 전원 찬성 의결함.
재각건립 성금모금 방안	2015. 7. 1.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신속허가를 받아 벌목공사를 마쳤으며, 토목공사도 금년도 9월 말경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재각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반면 재각건립 헌성금 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내년도 완공예정인 재각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지파총회에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국 종인들이 성심 성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종보 간행 발송 시 지로용지(금액은 자율표기)를 동봉하기로 의결함.
고유제 봉행 일정	4세조 청성백 정안공(諱 德符) 재각건립 고유제는 선조님의 위상이나 업적을 감안하면 별도의 고유제 일을 택하여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나, 전국 종인들이 많이 모여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27일 4세조 추향 일에 맞추어 고유제를 봉행하기로 의결함.



2015년도 제3차 대중회 회장단 회의 모습



대중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명옥 안효공파총회장 인사모습

2015년 乙未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 대중회 주관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21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25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中臺墓所	10.21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三	判書公(諱:漣)	11.06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二	閤門祇候公(諱:淵)	10.23	09.11	금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三	上護軍公(諱:鄉)	11.06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二	奉翊大夫公(諱:晟)	11.06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四	靑城伯(諱:德符)	10.27	09.15	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三	靑華府院君(諱:龍)	10.25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四	靑城伯 配位 靑州宋氏	10.29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 소중회 주관

五	都摠制公(諱:仁鳳)	10.29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六	평산부사공(諱:灝)	11.13	10.02	금	원주시 단계동 사천마을 (설단)
五	判事公(諱:義龜)	11.26	10.15	목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설단)	六	佐郎公(諱:溝)	11.26	10.15	목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재실)
五	知成州事公(諱:繼年)	11.26	10.15	목	광주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六	愛菴公(諱:涓)	11.28	10.17	토	광주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五	知成州事公 配位 崔氏	11.27	10.16	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六	良惠公(諱:石橋)	11.01	09.20	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
五	仁壽府尹公(諱:澄)	10.29	09.17	목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六	領中樞公(諱:濬)	11.12	10.01	목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五	安孝公(諱:濶)	09.27	08.15	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산의실	六	恭肅公(諱:滄)	09.27	08.15	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
五	三韓國夫人 順興安氏	10.26	09.14	월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靖夷公(諱:決)	11.15	10월첫째	일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21
五	靑原君(諱:淙)	11.19	10.08	목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14	六	贈參判公(諱:孝)	10.27	09.15	화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설단)
五	현령공(諱:天柱)	11.08	9月末週	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845	六	延日公(諱:自)	11.22	10월둘째	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五	돈제공(諱:天湜)	11.23	10.12	월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11.02	09.21	월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산12-6

★ 대중회 주관 時享 奉行時間 : 始祖 12時(正午) 그 외는 午前 11時에 奉享함

기고문

4세조 靑城伯·定安公

沈德符(1328~1401) 선조님 소개(2)



심재석

- 문학박사
- 대중회 이사
- 종보 편집위원

VI. ‘한양’ 건설의 총책임을 완수하다

--- 심덕부 총감독의 한양 건설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공은 태조 3년에 오늘날의 개성인 松都修築(송도수축)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다음 해에는 한양인 新都造成都監(신도조성도감)의 책임자인 判事(판사)에 임명되어 한양 건설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최종심인 한양 건설을 위해 일신을 다 바치신 것이다. 조선 말기 고종 연간에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곳으로 고종이 이어하면서 조선 건국 초기에 범공인 경복궁을 영건한 공이 있는 정도전, 심덕부 등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라는 전교를 내린 바 있다. “國初(국초)에 영건한 공을 생각건대, 鄭道傳(정도전), 靑城伯(청성백) 沈德符(심덕부)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지금 옛 나라가 새롭게 명을 받는 즈음을 당하여 나의 뜻을 표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묘에 모두 지방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7월 2일)

이 왕명에 따라 연천에 있는 공의 묘소에서, 그 지역 군수가 성대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것임에 틀림없다.

VII. 조선의 외교관 심덕부 - 明 나라에 세 번 賀正使로 다녀오다.

공은 賀正使(하정사)로 명나라에 세 번 다녀왔다. 하정사는 제후국이 천자국에 정초에 정기적으로 하례하는 사절단이었다. 첫 번째는 우왕 4년(1378) 10월에 개경을 출발하여 다음 해 3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의 직책은 판밀직사사였다. 이때 공은 명나라 황제 앞에서의 행동이 민첩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명나라 황제는 공의 귀국 편에 명나라 사신을 동행시켜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는 우왕 11년(1385) 10월에 출발하여 다음해 3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의 직책은 문하찬성사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양왕 3년(1391) 9월에 시종으로서 사행을 다녀왔다.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귀국길에 남긴 글이 〈청송심씨종보〉 7호와 50호에 수록되어 있다.

“어제 서신편에 몽고 사신이 변방까지 왔다 즉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소.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대단히 놀라운 일이요. 모르긴 하지만 요즘 政況(정황)이 어떠한가요? 이곳은 날마다 분주하오만 말로 다 하기는 어렵소. 듣기로는 趨遼(조준)이 100리 안에 머물고 있다하니 오늘 중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요. 노래 중에 ‘술 익자 국화 피고, 친구가 찾아 오자 달이 밝도다’는 것은 이것을 일컫음인데, 다만 새로 담긴 술이 아직 다 익지 않은 것이 흠이요. 淮(회)읍의 말으신 일은 좀 덜 바쁘신가? 여기서 서울까지 4~5 일 걸리는데, 지나는 길에 들러 하루 이를 쉬면서 회포를 풀까 하오. 격식을 다 차리지 못하오. 11일 사시. 덕부.”

이 편지는 공께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한양의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의 유일한 필적이 아닌가 싶다.

VIII. 국가를 경영하다

1. 정치인·경제가로서의 심덕부의 활동

공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몇 가지 정치 개혁을 주도하

였다. ① 관찰사 제도를 혁파하고 안렴사 제도를 복구함 ② 절제사, 경력, 도사의 제도를 없애고 장무, 녹사 제도로 환원시킴 ③ 감무, 역승, 유학 교수관, 각 고을의 장에 관한 법령의 폐지 ④ 각 기관에서 상부의 비준을 받을 때 도당에 직접 보고하고, 6조에 예속시키지 말 것 등이었다.(『고려사』 권 116, 심덕부 열전).

2. 조선 왕실의 외척이 되다

공의 5남 溫(온)이 세종의 장인이 되어, 태종 이방원과 사돈이 되었다. 공의 6남 淙(종)이 태조 이성계의 차녀 경선공주와 혼인하여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그러나 종은 불운한 삶을 마친다. 태종 이방원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던 회안대군과 가깝게 지낸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 16년에 황해도 토산에서 유배 중에 사망하였다. 무남독녀였기에 외손이 제사를 죽 지내왔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3. 조선 수도 한양의 명물이었을 ‘淸虛精舍’를 짓다

공은 68세 무렵인 1395년에 서울 청과동에 대저택인 ‘청허정사’를 지었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아마도 99칸 대저택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한양 건설의 총책임자였던 공은 건축에 대한 고도의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말년에 마련한 청허정사는 그야말로 심씨 가문의 위세를 말없이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청과동을 ‘靑松沈鄉’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이 저택에 살면서 성석린에게 보낸 시가 전해진다.

“대대로 벼슬하는 일 하필 延陵(연릉)에서 비롯하랴 / 화려한 일산과 수레로 불러 주기를 기다리지 않노라 / 구름조차 울타리를 보호하여 온 나라를 맑게 하리니 / 鼎彝(정이)에 글자를 새겨 中丞(중승)까지 아우르리라” (심덕부〈淸虛精舍贈成獨谷石璠〉, 청송심씨대중회 간행, 2006 〈靑松沈氏世稿選〉 34~35쪽).

이 시는 조선왕조의 창업과 가문의 번성에 대한 공의 긍지를 술회한 것으로 보인다. 청과동의 심씨 대저택은, 덕부 공의 그간의 공로와 성취에 대한 보답의 상징물이었다.

IX. 청백리 심덕부와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평가들

1. 청백리로 청사에 이름을 남기다

1) 공의 신도비에 나타난 후손의 평가는 이렇다. “성품이 인자하고 엄정하여 喜怒(희노)를 나타내지 않고 사생활에 쏠리지 아니하였다. 將相(장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20여 년에 집안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무릇 편지에 물품이 있는 것은 문안에 받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여러 아들들이 벼슬에 나가면 매번 손발을 내밀어 그 트고 동상이 걸린 것을 보여 주며 말하기를, ‘나는 나가나 들어 오나 부지런히 일하였어도 겨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들이 어찌 편히 앉아서 벼슬을 받는단 말이나?’ 고 하였다.

내직에 있으면 강직 결백하여 사사로움이 없었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과수만 죽이되 많은 부하는 살려주었다. 한가할 때는 항상 책을 읽었으니 소연한 선비 같았다.” (심통원, 〈청성백정간공신도비〉)

위 글은 공의 ‘행장’을 기반으로 착삭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청렴결백한 공의 면모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사실 공은 여러 가지 공로로 인하여 조정으로부터 많은 땅과 재산을 하사 받았다. 그러므로 당대의 부유한 별墅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2) 공의 청렴함은 6남 淙(종)의 혼인담에서도 나타난다. 이성계를 대신하여 경선공주와 6남의 혼인을 청하러 온 이방원이 집안에 당도했다. 이 때, 공은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입에 있던 거친 ‘조밥’을 처리하시느라 손님 맞이가 지체되었다. 일국의 재상이 조밥을 먹는다는 말에 놀란 이방원은 밥그릇을 보여 달라고 했고, 사실을 확인한 이방원이 송구해마지 않았던 것이다. (『청송심씨종보』 78호.)

3) 정승이 된 후에도 자식과 종들에게 “내가 아침 저녁으로 관청에 있으니, 너희들은 편지로 안부를 물으면서 물건을 가져오거든 받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송심씨종보』 55호 / 〈행장〉)

2. 장수의 복을 누리다

공은 당시로서는 장수한 74세로 영면하시었다. 아마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청백리로서의 삶을 사셨기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국사에 분주하니 노년의 치매를 막을 수 있었고, 젊은 시절 외적 퇴치에 신명을 바치는 과정에서 강건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심덕부 삼존불

근자 ‘심덕부 삼존불’이 발견되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조선 개국 직후에 최고의 匠人(장인)이 정성껏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삼존불상 내부에서 “청성백 심덕부가 발원해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황색 비단이 발견되어 그 제작자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보물급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는 이 불상은 공께서 말년에 가문의 안녕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은 성리학을 표방한 사회였으나 정신 세계는 불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년의 공은 사후 극락왕생과 가문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성을 기울인 삼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4. 후손들이 덕을 보다

조선 후기 정조 연간의 기록에 보면, 공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생이 세금을 면해 달라고 청원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형조가 擊錄人(격쟁인) 등의 原情(원정)으로 회계하였다. “松禾(송화)의 유학 沈瀟海(심도해)의 원정에, ‘저는 靑城伯(청성백) 沈德符(심덕부)의 16대손으로 송화에 우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들여서는 「너의 오촌 조카 다섯 사람이 모두 軍額(군액)으로 정해졌으니, 役價(역가)를 속히 모두 납부하라.’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頃下(탈하)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4월 4일).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내내 어려운 일을 당한 후손들은 덕부 공의 후손임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공의 음덕이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미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공의 덕망을 사모하여 공을 서원에 배향하였으니, 광주의 東湖祠(동호사)와 심씨가 다수 거주하는 장성의 良溪書院(양계서원)이 그곳이다.

X. 출장입상(出將入相) 심덕부 - 청송 심문의 湖水가 되다

청송 심문이 대 문벌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공이 이성계와 더불어 위화도 회군을 결행하고, 그 이후 조선의 대문벌이 된 것이다. 공이 역사책에 이름을 등재한 것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크게 물리친 이후이다. 진포대첩이 바로 그 중요한 계기이다. 이 기록 이후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최선봉에 있었다.

공은 조선 개국 전에는 고려의 창왕을 몰아내고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옹립하여 이른바 ‘9공신’에 들었다. 공은 명나라에 세 번이나 하정사로 다녀온 외교관이였다. 나아가 한양 건설의 총책임자로서 조선 왕조의 수도를 훌륭히 건설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대인이 본 심덕부는 “마음 가짐이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몸 다스림이 청렴하고 간소하였다.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풍도는 온자하고, 말은 적으면서도 처사는 자세하였다. 진출하고 물러감을 때에 맞게 하고, 편안함과 위태로움에 뜻을 경주하였다. 때에 맞게 변통하여 병기(兵機)에 잘 응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서 오직 경의 명령대로 하였다.”고 한다. (李詹이첨)〈左侍中沈德符教書〉(동문선) 제23권)

우리는 공의 초상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음 기회에 공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면 이 기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공은 아드님 7분을 훌륭히 성장시켜 조선시대 대 문벌가문의 기초를 닦았으니 공은 명실공히 청송 심문의 ‘호수’ 역할을 하였다.

시조이신 흥부의 뒤를 이어 연-용으로 이어진 고려 말 신흥사대부 가문의 청송 심문은 청성백 덕부 공에 이르러 큰 湖水를 이루고, 거기서 다시 수백 갈래의 걸출한 인물들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공은 청송 심문의 호수였던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甲澤 文化理事 대행

餘桃之罪 (여도지죄)



한비자는 사랑과 관련된 씩씩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위(衛)나라 영공(靈公)은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美少年)을 늘 곁에 두며 아꼈다.

위나라의 법에 군주의 수레를 허가 없이 타면 발을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미자하가 궁정에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시바삐 어머니에게 달려가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공의 수레를 몰래 타고 나갔다.

영공이 이 소식을 들은 뒤에 미자하를 벌주기보다 “효자이다”라고 칭찬을 했다. “어머니를 찾아가느라 발이 잘리는 형벌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미자하가 영공과 함께 왕실 과수원을 거닐게 되었다. 그때 미자하는 맛있게 익은 복숭아를 먹다가 남은 것을 영공에게 주었다. 영공은 화를 내지 않고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나를 먹여주는구나!”라며 칭찬을 했다.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용모도 변하고 사랑도 식어졌다.

그러던 차에 미자하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자

영공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놈은 “제멋대로 왕의 수레를 훔쳐 타고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다”며 엄히 벌을 주도록 했다. 이로 부터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게 한 죄를 뜻하는 “여도지죄”의 고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비자는 영공과 미자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뒤에 애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칭찬받았던 일이 나중에 질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총평을 달았다.

사랑할 때는 잣대가 한없이 넓었다가, 사랑이 식으니 잣대가 한없이 좁게 변한 것이다.

미자하의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지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모실 때에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여도지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영공처럼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개인과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여도지죄”와 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현상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비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시조묘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삶의유머!

전라도 사투리로 쓴 사랑 고백 시

나~~가
당신을 사랑하갑소!
당신이 머시길래 나를 요로코롬
사로잡아 뽀다요?
당신이 나한테 멀해 줘다고 나~~가 요로코롬
다 주고 싶다요?
당신이 먼 말을 해 뿌렸길래
나~~가 요로코롬
그 말을 자꼬 생각하다요?
당신이 나한테 거시기헌 말 한마디에
어찌혀서 나 가슴이 오로코롬 띠뽀다요?
당신이 나하고 전생애
먼 인연이 있길래
나가 요로코롬 꿇지를 못히고 매달린다요?
당신이 나한테 먼 칭찬을 했길래
나가 요로코롬 기분이 조아 뽀다요?
가만히 봉께 당신은 암것도 안흥거 맨킨디
왜 나 혼자만 요로코롬 난리를 친다요?
맨날 나가 당신만 생각헌건
머뽀시 근다요?
나는 참말로 모르것쏘, 좀 갈께 주씨요!
당신을 생각헌면 참말로 나맘이
거시기 해뿌요, 어쩐다요? 나가 당신을 사랑 하갑소~~이?
당신이 봉께 긍거갈소? 안긍거갈소?
당신은 알고 있겠지라~~이?
나가요...저 우에 장미꽃을 당신한테 바칠텐께
나 맘을 쫓까 알아주면 겁나게 조아 뽀것쏘!
나 맘때로...
당신 생각험시롱 쓴 글이 끝나 뿌렸쏘!
어째 당신이 읽어봉께 재미있쏘? 어찌요?

- 대중회 관리부장 -



빌 게이츠가 말한 뜨끔한 명언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번쯤 아니, 여러 번 수백 수천 번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못난 사람이다.

인생은 등산과도 같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듯, 노력 없이는 정상에 이를 수 없다.

때론 노력해도 안되는게 있다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폐인이다.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오는 말도 곱기를 바라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해주길 바라지도 말라.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라.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지 말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 말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

모든 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 없인 못산다는 생각 또한 버려라. 내가 사라져도, 이세상은 잘~ 돌아간다.

오늘도 빌 게이츠(Bill Gates) 명언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글 제공 : 재춘 안효공파종회 감사

4세조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추진 현황

4세조 청성백 할아버님께서는 슬하에 7형제를 두시어 오늘날 그 후손들이 심문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심문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킨 청성백 할아버님은 심씨가문의 제2의 시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후손들이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실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여 비가 오는 날

에는 금년 5월3일 청성백 선조님의 춘향 때처럼 연천 마을회관을 빌려 천막을 치고 초라하게 시제를 올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대중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랜 숙원사업인 재각건립을 뒤로 미루지 않고 이번에는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2014. 11. 1 구성된 재각건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일가 여러분께서 재각건립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적극 동참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각건립추진위원회 언태 간사
(대중회 총무이사)

가. 경과보고

일 자	내 용
2014. 11. 1	청성백재각건립추진위원회 발족
11.13	○ 제1차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 - 연천 현장방문 및 공숙공중회 재실탐방 ○ 재각건립 위치선정(재열박사)
2015. 1. 14	재각 신축부지 임야 별목허가 신청
4. 13	○ 제2차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 - 재각건립 개발 인·허가 및 재각 설계업체 선정 - 재각 시공업체 선정 - 재각 조감도 제작 및 설치 - 재각 건축공사 감독관 선임
7. 1	재각건축허가 (연천군청)
8.10 ~ 8.11	재각건립부지 별목완료
8. 12	지적측량 완료
9. 4	토목공사 착공 ※ 2015. 9월말~10월초 완공예정

나.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기금 찬조 현황

(2014.11월 ~ 2015.9월 / 단위 : 원)

헌 성 금	헌 성 자
50,000,000	공숙공중중(회장:웅섭)
10,000,000	갑보 회장(개인)
	재영 고문(개인)
	광섭 대중회이사
	성보 대중회이사(법곳중중)
3,000,000	장식 함흥공중회회장 수운관공과마산중회(회장:규실)
1,000,000	익산중회(회장:상영)
	상식 대중회부회장
300,000	도정공과곡성중회(회장 상운)
	증평중회(회장:상학)
	용인중회(회장:진섭)
200,000	상협(서울/노원구)
	동섭 대중회이사(진주)
	언촌 대중회이사
	묵곡판사공중회(회장:동섭)
100,000	재화 대중회이사
	영섭(오산)
	정섭(전남 장성)
	경보
30,884	기타(이자수입)
합계	107,830,884

다.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추진비 지출내역

2015. 9. 23. 현재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금 액
	산림복구 설계비용	2,000,000
4.22	토목.건축설계 계약금	6,000,000
	조감도 제작비	2,300,000
7. 3	재각건축신고 제세공과금	3,730,200
	재각건축신고 제세공과금	187,720
7.21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비	4,000,000
	지적분할 측량비	653,400
8.10	재각건립 진입로 정비	500,000
8.26	재각건립 토목공사 선급금	27,500,000
	재각건립 현장조사, 공사현장 설명회, 공사감독 등 제 부대비용	4,931,170
9.23	재각건립 토목공사 잔금지급	12,430,000
	재각건립 현장조사, 공사현장 설명회, 공사감독 등 제 부대비용	4,931,170
	2014.11월~2015년9월23까지 증여세 납부	9,460,700
	합 계	73,693,190

* 2015. 9. 23 현재 재각건립기금 계좌 잔액 : 34,137,694 원

청성백.정안공 재실 준공 시 재실(齋室) 창건기(創建記) 석판(石板) 옆에 재실건립헌성자 석판게시(石板揭示)에 아래와 같이 새겨 청성백·정안공 재실과 함께 영구 보존됨을 알려드립니다.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게시 예 :

헌성 내역	금액	헌성일자	계과
공숙공중중(회장 沈雄燮)	50,000,000	2014.11월	안효공과/공숙공중중
沈甲輔(대중회회장)	10,000,000	2015.1월	안효공과/온양공중중
沈載榮(대중회고문)	10,000,000	2015.2월	안효공과/풍덕공중회
沈光燮(대중회문화이사)	10,000,000	2015.2월	안효공과/공숙공중중
沈成輔(대중회이사)	10,000,000	2015.7월	안효공과/법곳중중

※ 석판게시 기준 : 중회 5천만 원 이상, 개인 1천만 원 이상
그 외는 정보에 게시되어 대중회 역사에 길이 보존됩니다.



2014년 청성백 정안공 재각위치 선정



2015년 재각부지 별목사진



2015년 9월 30일 현재 기반공사 사진

안효공파종회 정기총회 참석 소고(小考)

이번 안효공파종회 정기총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는 뜻 깊은 정기총회로 대총회 집행부 임원은 모두가 참석하였다.

총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300여 명의 일가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단상 옆에는 대총회 감보 회장께서 보낸 축하 화환이 눈에 들어온다.

안효공파종회는 5세조 기준으로 제일 규모가 큰 종회이며, 종인수가 청송심문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높은 종회이다.

총회는 명옥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대총회 감보 회장의 축사, 결산·예산안 심의, 신임 회장과 감

사 선출로 차분히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덕망이 높으신 명옥 현 회장께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재 추인된 것에 대하여 대총회 집행부는 한마음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

신임 명옥 회장께서는 인사말씀에서 “우리 심문의 숙원사업인 4세조 청성백·정안공(青城佰定安公) 재각 건립에 다함께 참여 및 지원하자”고 하여 참석 종원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는 대총회 고문단에서는 상영, 상은, 영섭, 재영, 재홍 고문이, 그리고 회장단에서는 상

화 상임부회장과 안효공의 형제종회인 도총제공과 대표 민섭 부회장, 판사공과 대표 상식 부회장, 지성주사공과 대표 상록 부회장이 각각 참석하여 더욱 총회의 자리가 빛났다.

많은 일가 친척들께서 신임 명옥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하는 모습과, 화기에애하고 일가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청송심문의 자긍심을 느끼는 총회 자리였다.

안효공파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총회 준비에 수고하신 안효공파종회 집행부 임원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택 문화이사대행



안효공파종회 명옥 신임회장 인사 장면



대총회 감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는 상화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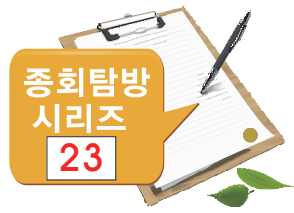


종원 질문에 답변하는 무섭 부회장

잘못 읽기 쉬운 한자

- 參考- ()틀린 讀音

1.ㄱ				7.ㅇ					
苛斂가렴(가검)	恪別각별(격별)	角逐각축(각추)	間歇간헐(간갈)	艱難간난(가난)	齷齪악착(악죽)	斡旋알선(간선)	謁見알현(갈견)	軋轢알력(알락)	隘路애로(익로)
干涉간섭(간보)	看倣간주(간조)	甘蔗감자(감서)	降下강하(강하)	腔血강혈(공혈)	冶金야금(치금)	惹起야기(약기)	掠奪약탈(경탈)	濾過여과(로과)	役割역할(역활)
概括개괄(개활)	改悛개전(개준)	坑夫갱부(항부)	更生갱생(경생)	釀出각출(거출)	軟弱연약(나약)	厭惡염오(염악)	囹圄영어(영오)	領袖영수(영유)	嗚咽오열(오인)
車馬거마(차마)	怯懦겁나(거유)	揭示게시(계시)	更張경장(강장)	更迭경질(강질)	誤謬오류(오류)	惡寒오한(악한)	渦中와중(과중)	歪曲왜곡(부곡)	外艱외간(외난)
譴責견책(유책)	驚蟄경칩(경칩)	膏肓고황(고맹)	滑稽골계(활계)	汨沒골몰(일몰)	邀擊요격(격격)	要塞요새(요색)	樂水요수(낙수)	窯業요업(강업)	凹凸요철(요돌)
誇張과장(오장)	刮目괄목(활목)	乖離괴리(승리)	攪亂교란(각란)	教唆교사(교준)	容喙용혜(용탁)	誘發유발(수발)	遊說유세(유설)	六月유월(육월)	吟味음미(금미)
交驩교환(교관)	口腔구강(구공)	句讀구두(구독)	口碑구비(구패)	拘碍구애(구득)	凝結응결(의결)	義捐의연(의손)	罹殃이병(나병)	以降이강(이항)	移徙이사(이도)
句節구절(귀절)	狗吠구페(구견)	救恤구휼(구혈)	詭辯괴변(위변)	龜鑑귀감(구감)	弛緩이완(지완)	已往이왕(기왕)	罹患이환(나환)	溺死익사(약사)	一括일괄(일활)
龜裂균열(구열)	琴瑟금실(금슬)	旗幟기치(기식)	奇恥기치(기심)	喫燃끼연(계연)	一擲일척(일정)	一切일체(일절)	剩餘잉여(승여)		
3.ㄴ				8.ㅈ					
儂禮나례(나례)	懦弱나약(유약)	內人나인(내인)	拿捕나포(장포)	懶怠나태(퇴태)	自矜자금(자금)	孜孜자자(목목)	藉藉자자(적적)	綽綽작작(탁탁)	箴言잠언(함언)
烙印낙인(각인)	難澁난삽(난지)	捺印날인(나인)	捏造날조(열조)	拉致납치(입치)	沮止저지(조지)	填充전충(전통)	傳播전파(전번)	截斷절단(재단)	接吻접문(접물)
狼藉낭자(낭적)	內帑내탕(내노)	鹿皮늑비(늑피)	壟斷농단(용단)	鹿茸늑농(늑이)	正鵠정곡(정호)	靜謐정밀(정일)	稠密조밀(주밀)	造詣조예(조지)	措置조치(차치)
賂物뇌물(각물)	漏泄누설(누세)	訥言눌언(납언)	訥辨눌변(내변)	凜凜늑름(품품)	躊躇주저(수저)	駐筭주차(주탑)	蠢動준동(준동)	浚濬준설(준첩)	櫛比준비(절비)
3.ㄷ				9.ㅊ					
茶店다점(차점)	團欒단란(단락)	簞食단사(단식)	曇天담천(운천)	逕至답지(환지)	斟酌짐작(심작)	執拗집요(집유)			
撞着당착(동착)	對峙대치(대지)	宅內택내(택내)	陶冶도야(도치)	跳躍도약(조약)					
瀆職독직(속직)	獨擅독천(독단)	鈍濁둔탁(둔탁)	屯困둔곤(둔곤)	遁走둔주(둔주)					
4.ㄹ				10.ㅌ					
滿腔만강(만공)	萬朶만타(만내)	罵倒매도(마도)	邁進매진(만진)	驀進맥진(막진)	貼付첨부(첨부)	諦念체념(제념)	忖度춘탁(춘도)	寵愛총애(용애)	攝影촬영(찰영)
盟誓맹서(맹세)	萌芽맹아(명아)	明哲명석(명철)	明澄명징(명증)	牡丹모란(목단)	追悼추도(추탁)	醜態추태(귀태)	秋毫추호(추모)	衷心총심(애심)	熾烈치열(식열)
牡牛모우(두우)	木瓜모과(목과)	木鐸목탁(목탁)	夢寐몽매(몽침)	杳然묘연(향연)	沈沒침몰(심몰)	鍼術침술(함술)	蟄居침거(집거)		
巫羈무기(무현)	拇印무인(모인)	毋論무론(모론)	無聊무료(무류)	紊亂문란(사란)					
5.ㄴ				11.ㅍ					
撲殺박살(복살)	剝奪박탈(약탈)	撲滅박멸(복멸)	反駁반박(반고)	頒布반포(분포)	擄得터득(여득)	慟哭통곡(동곡)	洞察통찰(동찰)	堆積퇴적(추적)	偷安투안(유안)
拔萃발취(발취)	拔擢발탁(발요)	發揮발휘(발혼)	潑刺발랄(발자)	幫助방조(봉조)					
妨碍방애(방의)	勃興발흥(역흥)	跋扈발호(발파)	拜謁배알(배갈)	範疇범주(범수)	派遣파견(파유)	破綻파탄(파정)	跛行파행(피행)	裨官패관(피관)	霸權패권(파권)
兵站병참(병정)	報酬보수(보주)	布施보시(포시)	補塤보진(보진)	復活부활(복활)	敗北패배(패북)	膨脹팽창(팽창)	平坦평탄(평단)	閉塞폐색(폐한)	褒賞포상(보상)
敷衍부연(부행)	分泌분비(분필)	不朽불후(불구)	沸騰비등(불등)	否塞비색(부색)	暴惡포악(폭악)	捕捉포착(보착)	輻輳포주(복주)	漂渺표묘(표사)	標識표지(표식)
頻數빈삭(보수)	嘸蹙빈축(빈축)	憑藉빙자(빙적)							
6.ㄷ				12.ㅎ					
詐欺사기(언기)	使噤사주(사죽)	奢侈사치(사다)	娑婆사바(사파)	社稷사직(사목)	畱引할인(할인)	陝川합천(협천)	肛門항문(홍문)	行列항렬(행렬)	降伏항복(강복)
索莫삭막(색막)	索然삭여(색연)	撒布살포(산포)	三昧삼매(삼미)	上梓상재(상자)	降將항장(강장)	偕老해로(개로)	楷書해서(개서)	解弛해이(해야)	諧謔해학(개학)
相殺상쇄(상살)	數數삭삭(수수)	省略생략(성략)	棲息서식(처식)	逝去서거(절거)	享樂향락(형락)	絢爛현란(순란)	子遺혈유(자유)	嫌惡혐오(검악)	荊棘형극(형자)
先瑩선영(선형)	閃光섬광(염광)	星宿성수(성숙)	洗滌세척(세조)	蕭條소조(숙조)	恍惚황홀(광홀)	灰燼회진(회진)	膾炙회자(회화)	劃數회수(화수)	橫暴횡포(횡폭)
溯及소급(삭급)	甦生소생(갱생)	騷擾소요(소우)	贖罪속죄(독죄)	殺到쇄도(살도)	嚆矢호시(고시)	嗅覺후각(취각)	麾下휘하(마하)	彙報회보(과보)	恤兵후병(혈병)
戍樓수루(술루)	數爻수효(수차)	睡眠수면(수민)	豎說수설(견설)	示唆시사(시준)	欣快흔쾌(근쾌)	恰似흡사(합사)	洽足흡족(합족)	薨去흥거(붕거)	詰難힐난(길난)
柴糧시량(자량)	諡號시호(익호)	呻吟신음(신금)	辛辣신랄(신극)	迅速신속(빈속)					



부산 청송회



심재영
대중회 이사
부산청송회 회장

탐방처 : 부산 청송회
탐방일시 : 2015년 9월 17일 오전 11시
참석자 : 고문 : 용보, 용식, 재덕
회장 : 재영 부회장 : 태섭
총무이사 : 세복 회원 : 재립 (총 7명 참석)
탐방자 : 甲澤 대중회 문화이사 대행, 載緒 재무이사

1. 부산 청송회 발족

1960년대 발족하여 부산지역 거주 청송심문의 친목단체로 활동하여 오고 있다.

2. 부산 청송회 활동상

- 1) 매월 16일 정기 월례모임과 매년 1월 16일 정기총회 개최.
매월 모임을 갖고 일가들의 소식과 청송회 활동에 대해 의견교환 후 단합 식사 모임을 갖고, 매년 1월 16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 2) 연 1회 선조묘소 순례
시조부터 순차적으로 연 1회 이상 선조묘소 순례행사 및 친목 여행으로 선조님의 음덕을 기리고 종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 3) 대중회 행사에 적극 참여
정기총회 및 뿌리교육 등 대중회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3. 대중회에 대한 평가

- 1) 현 집행부는 옛날 집행부와는 달리 심문의 소식지인 종회보(宗會報)를 잘 활용하여 우리 청송심문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정성껏 발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중회와 일가들의 친목단체 그리고 타 종인들의 모범이 되는 종인소개 등 전국종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2) 안성의 일부 종인들이 대중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대중회는 강력히 대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회는 행정적인 처리에도 완벽하게 해 두어야 한다.
- 3) 대중회 제5대 갑보 회장님의 역점 사업인 연천 청성백정안공 재실 건립 추진은 아주 잘 된 일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성공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믿고 지지를 보낸다.

4. 대중회에 바람

- 1) 향후 대중회가 자금의 여력이 있을 때 대중회 명의로 각 광역도시에 임대 빌딩을 대중회 명의로 구입하여 임대료는 대중회 수입으로 하고, 일부 공간은 종회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5. 재영 부산 청송회장님의 당부

바쁜 일상 중에도 청송회 회원들은 일가들의 모임에 꼭 참석하여 서로 친목을 나눌 것을 당부한다.

6. 청송회 탐방 후기

대중회 집행부 일원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부산 청송회를 방문하여 원로 일가 분들을 뵈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 종사업무에 보람을 느낀다.

옛날에는 청송회 모임에 백여 명 이상도 모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모이는 일가들이 적어진다는 원로 일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부산 청송회뿐만이 아니라 타 종회와 친목회도 마찬가지로이지라.

일가들의 모임 활성화와 젊은 종인들이 열심히 종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대중회 역할인 것이다.

부산 청송회를 탐방하면서 따뜻한 일가 분들의 환대를 받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청송심문은 한 핏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바쁜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재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고문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산 청송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대답 : 甲澤 문화이사대행



부산청송회 임원진과 탐방원 청송회 발전 건배



청송회 회원들의 여행

※ 차기 종회탐방 일정

일 시 : 2015년 10월
탐방종회 : 안성종회(회장 : 일용)
탐방자 : 갑택 문화이사대행,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광섭 이사(편집위원)

종인소개



심강채
(전남 보길도)
판사공파

대중회 문화업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취재원인 전라남도 보길도에 사는 강제 종인을 찾아 전혀 모르고 살던 일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KTX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전임 문화이사였던 재서 재무이사과 광섭 이사가 동행해 주기로 하여 심적 부담 없이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용산역에 오니 벌써 두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출발한지 5시간여 만에 해남 땅 끝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화도부두에 내리니 강제 종인이 마중을 나와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며 반갑게 맞이하니, 우리 또한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같은 혈육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후덕한 모습의 첫 인상과, 아름다운 섬에서 어려운 이에게 봉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여유로운 삶이 존경스럽다.

연륙교 두개를 지나 운영하고 있다는 민박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넘었다. 이 민박집은 이곳 보길도 도로명 주소의 시작점으로 "보길로 1"인 것과 주위에 모든 행정기관이 있어 보길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제 종인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던 우체국 근무를 정년 퇴임하고, 고향인 보길도로 귀향하여 일가들을 독려하고, 선조님의 얼과 음덕을 가르치며, 묘역 관리와 제향 봉행을 주관하며, 조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또한, 강제 종인은 대중회 종보찬조 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3년째 송금하고 있다. 그 뜻은 대중회를 비롯한 심문에 모든 일가끼리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살자는 무언의 의미가 있고, 강제 종인이 젊음을 바쳐온 우체국 업무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속내가 있는 듯하다.

저녁에 부근의 일가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 강제 종인은 새마을지도협의회회장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보길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불우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매월 송금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는 일가 가족 모두 청송의 시조 묘소를 시작으로 선조 묘소 참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종인들과의 좌담회는 선조님의 이야기와 청화부원군 청성백 재각건립, 대중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특히, 재각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종원들은 모두 금지를 느끼는 모습이었다.

살아가는 훈훈한 이야기와 전복양식을 전문으로 하며 고소득을 얻는 일가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게 되었다. 땀 흘려 얻어내는 소득을 기피하는 도시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이곳에는 도시로 갔던 젊은이들이 귀촌하

여 전문 어업인으로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곳에는 4세조 청성백 정안공 둘째 아드님인 5세조 판사공과 종인들이 주로 분포해 살고 있고, 이번 대중회 이사들의 방문을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어 일가라는 끈끈한 정이 이곳에서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종보 구독을 하지 못하던 일가들에게도 종보를 발송하여 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과 알찬 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새삼 느끼게 된 자리였다.

술선수범하는 강제 종인의 고귀한 뜻이 짝이 되어 제2, 제3의 강제 일가가 나오리라 믿어본다.

강제 종인을 비롯한 이곳 일가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21일
갑택 문화이사대행



강제 일가의 민박집 앞에서



보길도 종인들과의 건배

탐방자 : 갑택 문화이사대행, 재서 재무이사, 광섭 편집위원

※ 차기 종인소개 : 심재홍(고문 / 前 경기도지사)



光燮 대종회 이사
(前 문화이사·종보편집위원)

대종회의 활력소인 찬조금

조상을 숭배하고 선조 묘소 수호와 제향을 받드는 일, 일가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총유물(總遺物)을 보존 관리하는 종사업무(宗事業務)는 가식(假飾)이 아니라 정성이 깃든 마음을 갖고 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 일가끼리 서로 반기고 아끼며 도와가는 돈목의 정신은 바로 우리 심문의 화목과 융성의 원천입니다. 대종회(大宗會)는 청송심문의 종사(宗事)업무를 총괄하고 심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수백 년 간 우리 선조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조직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사업목적 달성을 데는 재원(財源)이 필요하게 마련이지요. 「대종회정관 제26조(재정.회계)1항 대종회의 재정은 종인의 찬조금, 헌성금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자가 대종회 문화이사로 재직하면서 찬조금에 대해 느낀 감정을 피력(披瀝)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문화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문의 소식지 「청송심씨종보」에 과거 종회별 찬조 현황을 관심 있게 살피곤 하였습니다. 과거 찬조 현황(종보찬조 14년, 장학찬조 5년, 재각헌성 1년)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이 빈약한 종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종회 사업에 정성어린 찬조로 기여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고된 노동을 해가며 절약한 거액의 돈을 장학금으로 헌성하시는 할머님이 계시고, 적은 월급생활에도 선조님 재각헌립에 헌성금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어려운 종종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금으로 대종회사업에 힘을 보태는 일가들도 많

이 계신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정성을 보면서 **찬조금이란** 돈이 많아서 쓰고 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선조님을 위한 종사(宗事)활동에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종회 제5대 갑보 회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성백, 정안공 재실이 성공적으로 창건(創建)되려면 전국 종인친지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찬(協贊)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심문이 모두 힘을 모아 연천에 청성백, 정안공 선조님의 웅장한 재실이 성공적으로 창건되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2015년 9월 30일

각종 찬조현황 2015. 7.26~9.30

임원회비		
부회장회비	300,000	상식, 명옥
이사회비	50,000	재덕(경북), 춘보(서울), 상직(인천), 이섭(인천), 만택(강원), 우경(광주), 광섭(서울 은평구), 원보(경기 과천)

지로종보찬조(7.26~9.30)			
근섭	이섭	기섭	성보
창섭	용섭	규섭	창섭
성길	남섭	재복	희돈
이경	재혁	상철	희돌
민성	만택		

2014년도 이사회비 미수금 명단	
서울	: 상목, 원식, 재철
충남	: 규증
강원	: 동섭
경기	: 재만

종보찬조	
5,000,000	안효공파종회(회장 명옥)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 웅섭)
500,000	함흥공종회(회장 장식) 곡산공종중(회장 상영) 재서(재무이사) 광섭(경기대종회이사)
200,000	좌승지공파임피종회(회장 상용) 부산청송회(회장 재영)
100,000	춘보(서울), 효식(서울)
90,000	창섭(고창)
60,000	강채(전남)
50,000	우경(광주) 용식(부산청송회 고문)

장학찬조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500,000	곡산공종중(회장:상영)

재각헌립 헌성금	
10,000,000	함흥공종회(회장 장식)
3,000,000	수운판관공파마산종회(회장 규실)
1,000,000	도정공파곡성종회(회장 상온)
100,000	언춘(경기)

2015년 예산 대 실적			
(2015.9.30. 현재) (단위:천원)			
구분	예산	실적	달성율(%)
임원회비	19,550	9,900	51
종보찬조	48,000	28,423	59
장학찬조	2,000,000	199,690	10
재각헌립헌성금	1,200,000	298,366	25

■ 청성백·정안공 재각헌립 헌성 (1천만원 이상 시공시까지 사진 게재)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 게재

成輔 대종회 이사	光燮 대종회 이사	載榮 대종회 고문	甲輔(개인) 대종회 회장	공숙공종중 (회장 雄燮)	재서 대종회재무이사	안효공파종회 (회장 명옥)	곡산공종중 (회장 상영)	광섭 대종회이사	함흥공종회 (회장 장식)	공숙공종중 (회장 웅섭)	문화이사대행 (갑택)	캐나다종회 (회장 상욱)	윤인종회 (회장 진섭)
1천만원 2015년 7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1월	5천만원 2014년 11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5년1월9일	종보찬조 500만원 2015년9월	종보.장학찬조 100만원 2015년8월	종보찬조 50만원 2015년8월	종보찬조 50만원 2015년8월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5년8월	종보찬조 50만원 2015년7월	종보찬조 50만원 2015년6월	종보.장학찬조 80만원 2015년5월

安孝公派宗會 任員 개선 (2015.8.13.)

회 장 : 明玉
 부회장 : 茂燮(常勤), 相直, 庚周
 감 사 : 載文, 載春, 宗顯
 상근이사 : 榮燮(總務), 奉燮(財務), 元燮(技術.管理)

공 지 사 항

- ◆ 청송심문의 자녀 결혼 시 대종회로 일자를 알려주 시면 청송심씨대종회 회장명의 축전과 종사(宗事) 수첩을 보내드립니다.
- ◆ 심문배지 보급
 단가 : 5천원(20개 단위(10만원)로 신청 시 택배발송)
- ◆ 족보 대폭할인 보급 : 1질(11권) 6만원

종보편집위원회 회의 개최안내

아래와 같이 종보편집위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5년 12월5일(토) 오전11시
 장 소 : 대종회사무실
 참석자 : 종보편집위원
 안 건 : 종보편집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청송심씨종보”는 29만 우리 청송심문의 소식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미담(美談) 교양에 관한 글(시, 수필 등)을 투고해 주시면 종보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종보 3면 교육 문화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구독신청

종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종인께서는 대종회 사무실로 도로 명주소와 성명을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송부해 드립니다.

책자 강매주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대종회를 사칭하며 족보, 기승 등 종회 관련 책자를 고가에 강매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 재고 저가공급 안내

2000년 경진보 족보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품절될 수 있으니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질 11권 6만 원이며,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대종회 주관 5처묘소 추향 참석에 단체버스로 참석하시는 종인께서는 필히 대종회(총무이사)로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에서 종보와 함께 연2회(3월, 9월) 송부하는 (종보찬조, 재각건립 헌성금) 지로찬조는 의무 사항이 아님을 공지합니다.
- 대종회 종보에 종인소개, 종회탐방 코너가 있습니다. 종인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종인이나 종회활동을 널리 알리고 싶은 종회는 대종회(문화이사)로 연락바랍니다.
- 2016년 2월 하순 지급하는 대종회 장학금 지급안내는 11월 종보에 게시합니다.

인터넷족보 수단접수 안내

청송심씨대종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족보는 매 3~5년마다 추가로 등재합니다. 추가등재시마다 기본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년 등재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고 금년에 많은 분들이 등재하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엮어 발간하는 족보는 향후 수십여년 간격으로 별도의 수단과정 없이 인터넷 족보를 인쇄하는 형식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등재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안내 -

1. 수단 접수기간 : 2015년 6월 1일 ~ 11월 30일 (6개월 간)
2. 제출서류
 -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서식)
 - 나.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적등본 등 공문서
 - ※ 등재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문서 기준으로 등재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또는 집에서 관리하는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3. 제출방법
 - 가. 우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 47 (우편번호 : 100-310)
 - 나. 팩스 : 02-2269-7755
4. 수단록 작성방법
 - 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 인터넷 족보(추가등재신청) 메뉴에 공지한 수단용지(갑, 을)를 다운받아서 수단작성 방법(견본)을 참조하여 작성
5. 수단금 납부
 -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 나. 계좌번호 : 농협 301-0164-0584-31 (청송심씨대종회)
6. 유의사항.
 -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단록만 제출하신 분은 인터넷 족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나. 2011년도 이후 대종회에 인터넷, 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기 인터넷 등재 신청하신 분께서도 2015. 6.1~11.30까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의문사항은 청송심씨 대종회 총무이사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대종회 총무이사

인하대 심명필 교수 정년퇴임



심 명 필

지난 8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토목공학 박사인 인하대학교 심명필 교수(부친 재완)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한국수자원학회장과 대한토목학회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역임.

2015년 제3차 회장단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 1월 종보에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에 많은 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로용지(청성백·정안공 재실건립 헌성금)를 종보와 함께 송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무헌성은 아님)

파별 인원 현황
(족보등재기준)

2015.9.30.			
세(파별)	총계(인원수)	비율(%)	비고
2세 봉의공(晟)	20,821	7.25	
도총제공	13,269	4.62	
판사공	5,639	1.96	
지성주사공	14,092	4.91	
인수부윤공	52,435	18.25	
안효공	134,992	46.99	영종추공 32,422명(24%) 공숙공 97,203명(72%) 정이공 4,315명(3%) 기타 1,052명(1%)
동지총제공	1,763	0.61	
약은공	44,252	15.4	영동정공 21,610(7.51%) 현령공 22,396(7.80%) 학생공 246(0.09%)
기타	32	0.01	
계	287,295	100	

2015년 12월 25일까지 임원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미납 시 임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6년 이사명단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 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 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